



박 대통령 科學技術관계 語錄

- ……우리나라 科學技術界는 近年에 와서 눈부신 活動相……○
- ……을 보이고 있으며 急進的으로 發展向上되어 가고 있다. ……○
- ……이는 어느 때 보다도 強力한 科學技術政策을 樹立 推進하고……○
- ……있는 政府의 뒷받침과 科學技術人들의 總和된 努力의 結晶이라고……○
- ……하겠다. 朴正熙대통령은 維新憲法 第123條에 『經濟發展을 為한 科學……○
- ……技術은 暢達興振되어야 한다』고 明示한 후 많은 公式席上에서 科……○
- ……學技術의 暢達振興을 여러 차례 強調한 바 있다. 그동안 朴正……○
- ……熙대통령이 強調한 科學技術관계語錄을 여기 紹介한다. ……○

◊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 지금 우리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국력배양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러하고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민족의 소명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국력배양의 기본은 중화학공업의 육성 발전에 있으며 이것은 또한 국민의 과학화운동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3. 3. 23

◊ 전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교육자 대회에서

○ 지금 우리는 농촌의 획기적 발전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 그리고 수출의 대폭 신장이라는 3대 목표를 내세우고 국력배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3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과학과 기술의 진흥이 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이 3대 목표를 앞당겨 완수 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1973. 3. 23

◊ 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에서

○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진흥은 경제발전의 동력이며 국력의 척도입니다.

1973. 10. 23

◊ 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에서

○ 우리는 새롭고 보다 좋은 상품의 충산, 수

대통령의 과학기술관계 어록

출을 위해서 발명, 발견, 기술개발에 민족의 예지와 역량을 집결해야 하겠습니다.

1969. 10. 23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식에서

○ 우리모두가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자 기술자를 아끼고 육성하며 기능을 자랑으로 삼은 과학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으며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1969. 10. 23

◇ 제3회 과학의날 담화문에서

○ 과학기술은 한마디로 국가발전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앞선 민족일수록 남보다 일찌기 발전을 이룩했고 번영을 이룩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민족이나 국가가 남보다 앞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1970. 4. 21

◇ 제3회 과학의날 담화문에서

○ 우리는 하루속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과학경쟁의 대열에서 남보다 앞장서 나가야 하겠고 과학의 힘과 기술의 힘으로 경제개발과 국력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1970. 4. 21

◇ 제3회 과학의날 담화문에서

○ 한 나라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자원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자본이나 자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970. 4. 21

◇ 제3회 과학의날 담화문에서

○ 선진국을 뒤따라 앞질러 나가야겠다는 결의와 창의적인 연구로써 새로운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선진 과학기술을 부지런히 도입하여 우리 것으로 흡수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과학 한국의 이름을 세

계에 떨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70. 4. 21

◇ 제3회 과학의날 담화문에서

○ 과학기술의 개발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창조적인 노력이 앞서야 하고 국민학교 교실부터 직장의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과학하는 분위기가 충만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과학을 존중하고 과학자를 아끼고 육성하며 기능을 자랑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1970. 4. 21

◇ 연두 기자회견에서

○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모두가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선진국자가 될수 없습니다.

1973. 1. 12

◇ 연두 기자회견에서

○ 80년대에 가서 우리가 100억 달러 수출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등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과학기술”的 개발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아동에서부터 대학생 사회 성인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가 전부 기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1973. 1. 12

◇ 연두 기자회견에서

○ 80년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국가가 될것이고 또 고도산업 사회에 들어가리라고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각자 자기 생활 방식부터 하나하나 과학화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74. 1. 18